

## 2000년대 이후 한국 CCM 비평장 내 쟁점 일고찰 CCM의 수용과 활용을 둘러싼 생산적 담론을 위해\*

김태룡\*\*

안승범\*\*\*

### 논문초록

이 글은 2000년대 이후 CCM 관련 비평장을 통해 오래도록 반복되어 온 논쟁들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과정에서 한국 CCM이 처한 현실을 포괄적으로 조망하고, 비평주체의 성격에 따라 분기되어 있는 다른 견해들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제출된 비평문을 비평주체 유형에 따라 분석한 결과, 한국 교회 내에 존재하는 신앙관의 차이, 문화를 바라보는 입장 차이 등을 분별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 기독교가 새로운 문화적 산물을 바라보는 스펙트럼에 있어서 매우 이질적인 입장들을 끌어안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CCM을 둘러싼 이견들을 포용하면서 부족한대로 생산적인 담론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비록 시론적 제언에 불과하겠지만 그 내용은 CCM에 관한 진전된 논의를 열어가기 위한 의도를 포함한다. 이 글이 다 다루지 못한 CCM 발전을 위한 산적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다시 여러 비평주체들이 참여하는 비평장의 공론 기능에 맡긴다.

주제어 : CCM, 비평장, 교회음악, 비평주체, 경배와 찬양, 문화운동

---

\* 이 연구는 건국대학교 KU연구전임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행된 과제임

\*\* 주저자,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박사과정

\*\*\* 교신저자,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연구전임교수

2015년 4월 30일 접수, 7월 3일 최종수정, 7월 21일 게재확정

## I. 서론

1980년대 이후, 한국 교회에 CCM(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이 미친 영향력은 실로 막대하다. CCM은 단지 특정 시대 젊은층의 세대감과 함께 명멸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시키며 현대 교회음악의 중요한 축으로 기능해 왔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회중예배의 형식이나 복음 전도의 방식에도 실제적인 아이디어와 영감을 제공했다. 교회 내 프로그램의 다각화에도 현실적 기여를 했으며 성도들의 개인 영성과 경건생활에도 많은 유익을 주었다. 심지어, 비기독교인들의 교회문화에 대한 저항감을 덜고, 소통의 방식을 확장하는 데에도 유의미한 촉매가 되었다. 더 나아가 찬양은 어떻게 드러져야 하고 드러질 수 있는가, 교회음악이란 무엇인가, 예배는 무엇이고 예배자란 누구인가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에도 응답해 왔다.

그런데 그와 같은 CCM의 파급력 때문에, 또 새로움과 세련됨으로 대변되는 CCM의 ‘동시대성’ 때문에 그간 수많은 논쟁이 야기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오래 전에 기독교 비평장에 등장한 논쟁거리가 쉽사리 출구를 찾지 못한 채 계속적으로 확대·재생산되어 왔다는 점이다. 비관적인 전망을 말하면, 이러한 사정은 CCM에 관한 현장비평이 활발하지 않고, 본격비평을 실을 수 있는 지면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쉽게 해결되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는 사이, 기존에도 열악했던 CCM 환경은 더욱 악화됐고, 기획사는 줄어들었으며, CCM 전문 사역자들 중 상당수는 생계의 활로를 찾지 못해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상황에 대해 앨범을 구입해서 듣는 문화가 사라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단순하게 환원할 수도 있다. 또 디지털 음원을 온라인으로 다운받는 문화가 확대되어 생긴 문제라고 진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CCM을 바라보는 한국 교회 내부의 편견들과 여전히 혼란스러운 CCM에 대한 다른 태도들도 거론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CCM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파악하는 한 방식으로 2000년대 이후 CCM 관련 비평장을 분석하며 오래도록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들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의 ‘비평장’은 CCM 관련 신문기사, 저널의 평문 등을 포함하며 관련 단행본과 논문, 그리고 팟캐스트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으로 유통되는 콘텐츠도 포함한다. II장에서는 우선적으로 한국 CCM의 역사를 기술하는 유력한 방식을 좇아 한국 CCM이 처한 현실을 포괄적으로 조망해보기로 한다. 특히 주목한 대목은, 그간 비

평주체의 성격에 따라 CCM에 대한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사실이 다. 그에 착안해, III장에서는 비평주체 중심으로 본 아포리아의 층위, 곧 역설적으로 길항하는 다른 주장들을 미시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그 과정에서 기독교 문화 안에 존재하는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성’ 문제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IV장은 III장에서 드러난 CCM에 관한 다른 입장들을 넘어서기 위해 부족한대로 몇 가지 생산적인 담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비록 시론적 제언에 불과하겠지만 그 내용은 CCM에 관한 진전된 논의를 열어가기 위한 의도를 포함한다.

바라건대, 이 글을 경유해 CCM에 관한 구체적인 전망과 비전을 찾는 비평이 확대 되고, 실효성있는 대안을 구하는 연구가 가속화되길 기대한다.

## II. 한국 CCM 역사에 대한 포괄적 조망

국내 CCM의 시작에 관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한국전쟁 직후 미국 선교사에 의해 전해진 ‘가스펠 송’이 직접적인 모태가 되었다는 설명이 유력하게 공유되는 편이다. 1960년대에 이르면, ‘가스펠 송’은 곧 ‘복음성가’라는 용어로 변환되어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다. ‘복음성가’라는 용어는 전통적으로 불려오던 표준 찬송가 중심의 교회음악과 다른 대중적 스타일의 착종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가스펠 송을 통해 컨템퍼러리 장르에 대한 수용 범위가 넓어졌고, 당대 젊은이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음악스타일이 교회음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예컨대, 1960년대 후반을 지나는 중, 포크음악 문화가 교회 내에 영향력을 발휘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 한 예로, 1969년 서울의 경동교회에서는 조영남, 최영희, 트윈폴리오(윤형주,송창식)를 초청한 음악모임이 열리기까지 한다. 당시 교회 내 회중예배에서 대중가요 가수가 기타를 치며 찬송을 부른 것은 한국 CCM 전사(前史)에서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록된다. 같은 해 미션스쿨인 정신여고 합창단이 한국 최초로 ‘노래 선교단’이라는 이름으로 가스펠 송 전국 순회공연을 열었던 점도 특기할 만하다.

이처럼 벌써 반세기 전에 보수적 색채가 짙은 한국교회에서, 특히나 회중예배나 집회 시에 컨템퍼러리 음악에 대한 포용의 자세가 일부 확인된 건, CCM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한다. 유념할 점은, 대중매체의 소구력이 증가하면서 대중가수들이 컨템퍼러리 음악의 교회 유입에 중요한 가교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다. 그에

관해서는 1973년 100만에서 300만으로 추산되는 회중이 모인 ‘빌리 그래함 한국전도 대회’ 사건을 반추해도 좋을 것이다. 당시 기타 반주에 맞춰 조영남이 과격적인 창법으로 기독교 음악을 부르자, 대중적인 스타일로도 기독교 음악을 부를 수 있다는 정서가 받아들여지게 되었다(이한균, 2008: 85-86)는 진단도 존재한다. 김영기는 CCM이 급속하게 한국 교회 안에 퍼진 이유를 말하면서, 연예인들이 예수를 믿으며 그들의 방식으로 기독교 음악을 만든 점, 또 미국의 영향을 받은 젊은이들이 CCM(가스펠 송) 장르를 받아들여 새로운 음악을 대중매체나 음반을 통해 보급하기 시작한 점 등을 언급하며(김영기, 2006: 87) 문화선도 계층인 연예인들의 역할이 CCM의 태동에 미친 영향을 정리한 바 있다.

한편, 한국 CCM의 기원을 미국의 문화운동에서 찾는 입장을 따르면, 1960년대, 미국에서 사회운동으로 표출된 반문화(counterculture) 정신의 확산과 쇠퇴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 시기엔 히피운동, 시민권 운동, 반전(反戰)운동을 포함해서 소수자와 약자의 권익을 주장하는 다양한 사회운동이 전세계적으로 일어났다. 미국에서도 아버지 세대의 이념과 질서를 회의하고, 새로운 지향점을 찾는 젊은이들이 나타났고 그들은 주류사회의 가치관에 대한 저항·단절·극복의 논리를 만들어갔다. 물론 이러한 반문화 운동의 공격 대상엔 미국 기성사회의 신념체계를 지배하고 있던 기독교적 질서도 포함되어 있었다.

주목할 것은, 1970년대를 지나면서 반문화 운동의 겨냥점이 불분명해지고, 반문화 운동에서 현실화 된 단체와 조직이 주류사회로 편입되면서 응집력이 약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후 미국의 일부 교회는 정신적 결핍과 문화적 공백을 채워줄 수 있는 대안적인 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예수운동(Jesus movement)을 전개하기에 이른다. 예수운동은 젊은층의 내적 욕구와 세대감각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음악의 형식을 빌렸고, 메시지 면에서는 기성 교회의 율법화된 편견을 버리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의식을 드러냈다. 그 때문에 예수운동은 기독교 내부적으로도 반문화 운동의 성격을 띠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예수운동은 미국의 CCM이 자리잡는 데 결정적 공헌을 했으며, 악기구성과 음악스타일 면에서 오늘날 한국의 ‘경배와 찬양’과 같은 특징을 확립시켰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미국의 ‘예수운동’과 그 결과물로서 미국 CCM이 한국의 CCM으로 수평이동되었다는 ‘문화이식론’적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진 않는다. 결론부터 말

하면, 본격적인 CCM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국내에서도 대중문화의 소구력을 수용 또는 이용해 온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새롭고 세련된 음악에 대한 보편적 열망과 자신들의 감수성에 부응하는 음악형식을 원하던 젊은층의 수요가 겹치면서 대중음악 스타일에 더 가까운 쪽으로 복음성가의 성격이 변화해갔다는 점도 바라봐야 한다. 그 때문에 한국 CCM은 기존 복음성가보다 더 새로운 음악 스타일을 갈구하게 된 젊은층의 내적 열망 위에 미국 CCM과 팝음악의 영향력이 더해지면서 ‘발전’된 형식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런데, 1980년대 중후반 오늘날과 같은 CCM이 한국에 정착한 이후에도 그 개념에 있어서는 합의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그도 그럴 것이 CCM은 ‘복음성가’, ‘가스펠’, ‘경배와 찬양’ 등 다양한 용어와 중첩적으로 사용되면서 긴 시간 독립적 지위를 얻지 못했다. 공인된 비평지면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어서 CCM에 대한 수많은 평문이 산발적으로 제출되었지만, 그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체계적인 담론이 형성되어 온 건 아니다. 물론 학술 연구의 수준으로 제출된 글도 지극히 드물다.

그럼에도 한국 CCM의 기원과 역사적 계보화 작업에 관해서는 CCM 현장 사역자와 전문 평자를 중심으로 산발적인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어 온 면이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로는 공시적 관점에서 CCM에 대한 다양한 쟁점을 끌어안으려는 공론장이 어느 정도 형성된 점도 파악할 수 있었다.(임준상, 2000: 124; 이유정, 2007: 50; 김영기, 2006: 86; 이광복, 2006: 93; 민호기, 2006: 73; 하덕규, 2007: 61; 윤나리, 2010: 147-149; 이한균, 2008: 64-65)

CCM의 역사에 관한 기존의 관점을 사적인 평가를 경유해 요약하면, 평가에 따라 미시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두 가지 계열을 분류해서 판단하는 관습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두란노 경배와 찬양 계열에서 파생되어 오늘 날 회중예배에서 주로 사용되는 CCM이 있다. 이 계열의 CCM은 소비방식에 있어서는 ‘공공성’을 염두에 두고 제작되며, 노랫말의 특징에 주목하면 ‘수직적’ 예배의 특징을 분명히 한다. 이 계열의 음악을 문화적 맥락에서 보면, 동시대 젊은이들의 욕구와 문화적 감수에 부응하면서 변모해 온 특징이 있다. 예배갱신운동의 결과이면서 그 자체로 문화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교회 내에서는 싱어롱(singalong) 형태로 향유되었으며, 그 때문에 초창기엔 밴드 사운드의 수위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으나 이후 큰 무리없이 받아들여진 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관련해서는, 두란노 경배와 찬양 앨범(<전하세 예수> 시리즈)과 집회의 폭발력이 확인되면서, 보수적 한국교회 내 목회자와 전문적인 평자, CCM 아티스트 사이에 여러 논쟁(박철순, 2000: 103-105; 황재연 시명수, 2000: 18-19; 김인호, 복음과 상황: 112-117; 이유정, 2007: 50-59; 이유정, 2013: 50-58)이 촉발된 점은 주목할 만한 시사점을 안긴다. 그 중 가장 큰 쟁점은 설교중심의 예배를 중시했던 한국교회가 싱어롱 중심의 집회를 독자적인 예배형태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김인호, 2001: 113) 이에 관해선 기존예배에서 잃어버렸던 찬양과 경배의 의미를 회복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견해(박철순, 2000:103), 경배와 찬양 운동에 대한 반발이 음악 스타일에 대한 기성세대의 감성적 반발이었다는 견해(황재연 시명수, 2000: 18-19), 경배와 찬양 사역이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방향성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선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김인호, 2001: 114) 등이 혼재한다.

이러한 이견들은 우선 성(聖)과 속(俗)에 관한 이분법적 가치인식이 교회 내에 견고한 상황에서 기성세대와 젊은세대의 충돌 지점을 환기시킨다. 또한 내용적 메시지와 음악적 형식 사이의 혼란, 예배의 본질과 형태에 대한 신학적 이견 등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출발한 경배와 찬양은 이제는 한국 교회음악의 거대한 흐름으로 정착했으며, 개교회의 예배와 집회 형식 등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다만, CCM 내에서 ‘압도적’이라 할 수 있는 파급력 때문에 최근 비판적 성찰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한다.<sup>1)</sup>

사례를 중심으로 이 계열의 CCM을 통시적으로 살펴보면, 1987년 첫 물꼬를 튼 두란노 경배와 찬양 이외에도 임마누엘 선교단, 다드림선교단, 예수전도단 등이 초창기의 문화를 주도했다. 이후 인터콥, 다리 놓는 사람들, 디사이플스, 어노인팅, 다윗의 장막, 마커스, 뉴제너레이션 워십 등이 정기적인 회중예배를 이끌어내면서 단속적 운동 이상의 의미를 생산해 왔다. 이 계열의 음악을 변별적으로 언명하고자 한다면 CWM(Contemporary Worship Music)으로 그 성격을 특정할 수 있는 바, 이를 교회중심 CCM의 전형이자 모범으로 봐도 좋을 것이다.

두 번째, CCM 계열은 음악적인 구성이나 악기 사용, 창법 등을 상기할 때, 대중가

1) 2015년 4월 셋째주 멜론 CCM차트를 살펴보면 1위부터 50위 중 41곡이 “예배곡”이며 그 중 마커스 워십의 곡이 23곡 랭크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미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현상이며 한국 교회 내 소비되는 찬양이 장르적으로 다양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요의 형식을 적극적으로 차용하면서 기독교인 사이에서는 사적 향유차원으로 더 많이 소비되고 있는 CCM 계열이다. 이 계열의 CCM을 ‘경배와 찬양’ 중심의 CCM, 곧 CWM과 구분해온 이유는 가사와 음악 스타일이 개인차원의 고백을 담는데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 계열의 CCM은 기독교인의 삶과 모든 종류의 영적 영감을 폭넓게 아우른다. 앨범 발매를 기준으로 보면, 1986년에 <주찬양 1집- 그 이름>으로 한국 CCM의 시작을 연 최덕신을 필두로 1980년대엔 최인혁, 박종호, 이성균, 다윗과 요나단 등이 데뷔해 큰 주목을 받았다.

<주찬양 1집- 그 이름>을 한국 CCM의 기점으로 보는 견해(하덕규, 2005: 207; 이한균, 2008: 93; 김지환, 2012: 11)는 이미 보편화 된 것으로, 이는 가스펠 송과 다른 차원의 음악이라는 견해가 전제된 것이다. 이한균은 ‘포크 음악을 통한 복음성가 시대를 거치면서 악기 사용이 허용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만들어진 최초의 CCM 앨범’이라 평했으며 하덕규는 음악 형식에 있어서 싱코페이션이 본격적으로 사용된 앨범이라고 평가하며 이것이 정박개념으로 음악을 배운 기성세대와 협합을 듣고 자란 신세대 간의 문화차이 정도로 극명한 분기점을 만들어낸다고 말한다. 또한 악기 구성과 리듬의 특징 면에서도 최덕신의 음악스타일은 기존의 것과 완전히 구별되는 바, 이를 통해 CCM이라는 상상적 개념이 기독교인 사이에 자리잡은 것으로 평가된다. 참고로, 주찬양선교단이 1987년 시작한 주찬양캠프에 관해선 경배와 찬양 운동의 또 다른 시발점으로 보기도 하지만, <주찬양> 시리즈 앨범을 대상으로 국한하면 음악구성이나 악기사용, 창법 등의 특징에 비춰볼 때 사적 향유차원의 CCM계열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1990년대에는 송정미, 소리엘, 좋은 씨앗, 김명식, 아침, 강서정, 김승희, 안성진, 김수지, 창문, 소향 등 매우 많은 가수 혹은 그룹이 CCM 씬을 풍성하게 만들었다. 이 시기에 관해 더 말하면, 많은 CCM 아티스트 혹은 사역자가 등장한 것도 의미가 있지만, 장르의 다각화가 실천되면서 CCM의 외연이 확장됐다는 사실도 특기할 만하다. 예컨대, 프로그레시브 록의 정점을 선보인 예레미, 얼터너티브 록의 전형을 보여준 얼터 등은 국내 대중음악 시장에서도 주목할 만한 음악적 장점을 지니고 있었다. 흥미로운 건, 이 시기부터 CCM이 더욱 역설적인 지위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외적으로만 보면 CCM 시장의 열악성 때문에 좋은 음반을 제작할 수 있는 산업 시스템이 부재했지만, 기대와 우려를 함께 받으며 CCM이 크게 도약한 시대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00년대에는 꿈이있는 자유, 워킹, 조수아, 강명식, 시와 그림, 소망의 바다, 헤리티지 등이 앨범과 집회로 영향력있는 행보를 보여준 바 있다. 그러나 과거 예문기획, 싱코이노니아(1980년대)를 시작으로 다솔기획, 푸른사람들, 록뮤직, 솔트기획, 시편미디어, 칼라기획 등 다양한 CCM 기획사들이 존재했던 시대(1990년대)에 비하면 음반 제작 수요나 투자비용이 급감한 건 사실이다. 거시적으로 1990년대 후반 IMF 체제의 여파로 경제상황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것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또 MP3 다운로드 문화의 확대로 앨범 소비자가 줄어든 것도 외부적 요인으로 작동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보면, 전문 기획사의 감소로 CCM 사역자들의 입지가 줄고 활동이 단절된 점, 유명 CCM 사역자들이 거대한 대중음악 유통사를 이용하게 된 점, 오므니버스(omnivorous) 앨범, 컴필레이션(compilation) 앨범 중심의 제작·소비 패턴이 관습화된 점 등이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반 대중가수들의 CCM 참여<sup>2)</sup>가 확대됨에 따라 기독교 음악장르의 대중성이 배가된 것은 일종의 가능성이면서 또 다른 쟁점으로 남았다고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비평장 내에서 관습적으로 행해져 온 분류 기준(수직적인 CWM/수평적인 CCM)에 따라 CCM이 처한 작금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CCM의 바람직한 비전을 찾아나가기 위해서는 CCM의 역사와 비평장의 상황을 좀 더 다층적·입체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테면, 국내 CCM을 생산·소비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주체를 구분하고, 그들이 비평장 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는 것에 주목하면 한국 CCM의 행로를 찾는 데 요긴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들은 지난 십수 년동안 특정한 관점에 입각해 충돌해 왔고, 이견은 좁혀지지 않은 채 반복·확대·재생산되었다.

그에 따라 다음 장에서는 CCM 비평장 내 참여 주체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 후 그들 간의 미시적인 시각차를 밝히는 것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하겠다. 예컨대, 신학을 전공한 교계 리더십 진영, CCM 제작에 관여하거나 현장 사역자로 활동해 온 진영, 전

2) 2000년대에 들어서 가스펠 컨셉으로 앨범에 CCM을 수록한 가수들 : 이수영<내려놓음>, J의 <In My life Time>, 나얼의 <Back To The Soul Flight>, 브라운아이드소울의 <The Wind, The Sea, The Rain>, 조PD의 <Love&Life pt.2>, 김범수의 <5> 등의 단독음반들과 쿨의 이재훈을 중심으로 이수영, 이지훈, 바다, 김조한, 박기영, 린 등이 참여한 <미라클> 음반 등이 있다.



문 비평이 가능한 음악전문가를 포함한 광범위한 일반 수용자 진영을 구분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일별해 보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중요한 까닭은, 한국 CCM의 역사가 30여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CCM이 시대적 사명을 안고 있는 요긴한 도구인지, 세속적인 문화에의 복속을 부추기는 불온한 수단인지에 대한 지루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지금 이 순간에도 CCM 전문 사역자가 사명을 포기하고, 미래 세대의 열정을 끌어안는 기독교 문화가 실종되고 있다. 따라서 비평장 일각에서 반복되어 온 오래된 논쟁과 미해결의 입장들을 생산적으로 풀어보려는 시도는 CCM의 활로를 찾는 데 유의미한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 III. 비평주체 중심으로 본 아포리아의 층위

#### 1. 비평주체의 성격에 따른 담론 내용의 변별성

이 글은 CCM을 둘러싼 쟁점들이 긴 세월동안 합의되지 않은 채 길항해 온 이유 중 하나를 비평주체의 성격 차이에서 찾는다. 소박하게 생각해 보면, 신학을 전공한 교계 리더십 진영은 CCM 관련 쟁점에 접근할 때 신학적 관점에서 성경적 근거를 찾는 데 익숙할 것이다. 그러나 성경적 근거를 논리로 맥락화하는 과정에서 현장상황에 대한 판단이 배제될 수 있고, 사적인 견해가 도그마처럼 작동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 한편, CCM 제작에 관여하거나 현장 사역자로 활동해 온 진영은 경험론에 입각한 현장중심적 판단, 사역지향적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그들 대부분은 음악적 지식이나 테크닉, CCM계 전반의 상황에 대한 높은 이해를 지닌다. 그러나 ‘보수/진보’ 이원론적 시각에서 볼 때, 음악에 관한 진보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갖기 마련이고, 그 때문에 근본적인 가치판단이 희석될 우려도 존재할 것이다. 한편, 본격비평이 가능한 음악전문가를 포함한 광범위한 일반 수용자 진영은 신학적 식견이나, 이해득실에 대한 논리, 사역 마인드에 입각한 경험적 판단과는 무관하게 직관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다만 이때의 ‘직관’이 호오판단에 근거한 주관적인 입장발표일 개연성도 충분히 보인다.

실제로 CCM 관련 비평문을 비평주체 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예상치와 부분적으로 상충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정부분 예견된 논리 궤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CCM 비평장 내 목회자 혹은 신학자 계층(최혁, 2000: 92-96; 박양식, 2001: 32-33; 오소운, 2001: 66-73; 이성재, 2001: 47-53; 성석환, 2005: 96-97; 이광복, 2006: 92-99; 김영기, 2006: 84-91; 김철웅, 2006: 134-143; 박봉석, 2010: 200-202; 이상일, 2010: 50-55)은 문제에 접근할 때에 성경적 맥락에 대한 해석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흥미로운 건, 예배와 찬양에 관한 원론적인 주장들은 대부분 일치하나 CCM의 수용방식과 수용범위 문제에 있어서는 의견이 다소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목회자들의 비평 중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들은 찬양 또는 찬송의 근본적인 목적을 강조하며 가사와 음악스타일이 목적을 담는 그릇으로 적확하게 기능하는가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칭송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음악으로 표현할 때는 찬송이 된다. 따라서 찬송을 만들고 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음악적인 기술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다는 논지도 비교적 일관된다. 둘째, 목회자와 신학적 소양을 가진 전문 사역자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 진영의 논리를 따를 때, 교회 내 음악팀을 이끌며 교육하는 주체의 전문성은 음악적 전문성에 국한되지 않는다. 교회 내의 음악에 대한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이다. 같은 논리로, 잘못된 찬양문화의 확산에 관해서도 교회 내 목회자의 책임으로 돌린다.

반면 CCM의 수용 문제에 있어서는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고 있다. 이를테면, CCM이 교회 내 회중예배와 집회, 그리고 공적인 모임에 요긴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최혁, 2000: 92-96; 이광복, 2006: 92-99; 김철웅, 2006: 134-143)과 CCM이 태생적으로 세속적인 양식에 기인하기에 교회 내에서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오소운, 2001: 66-73; 이성재, 2001: 47-53; 박봉석, 2010: 200-202)이 존재한다. 그 중간지점도 존재하는데, CCM의 역할을 인정하되 목적에 맞게 사용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김영기, 2006: 84-91; 이상일, 2010: 50-55)도 생각보다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이러한 의견 대립의 배경에는 본인의 신학적 성향, 교회 내 역할과 직위, 목회 환경에 대한 다른 이해, 익숙한 교회음악 형태, 평자의 연령대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로, CCM 생산자 진영, 곧 CCM음원·음반을 제작한 경험이 있거나 CCM 사역자로 활동하거나 교회 내 찬양 사역자로 통칭되는 부류의 주장을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이들은 CCM 현장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는 바, 상당부분 공

유된 논리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CCM 수용의 관점에서 보면, 첫째로 어떠한 음악적 형식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임준상, 2000: 123-127; 박철순, 2000: 102-105; 황재연·시명수, 2000a: 20-21; 조화순, 2001a: 70-71; 하덕규, 2006a: 188-191) 이는 CCM의 세속성을 지적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맞서 사역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확보하는 데 선제적인 논리가 된다. 둘째, 예배 중 찬양의 지위와 역할을 강조하며 그 중요성에 대한 재론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그들은 찬양시간이 예배 전후로 밀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경계한다. 일부는 소위 찬양사역자로 불리는 직분의 생계에 대한 교회의 책임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데까지 나아가기도 한다.(이광국, 2000: 20-21; 박철순, 2000: 102-105;) 셋째, 앞서 논한 찬양사역자의 처우개선과 유사·확장된 주장으로, CCM 음악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교회 내 문화가 일반 사회의 윤리성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음원이나 악보에 대한 저작권 보호 문제는 그와 관련된다. CCM 생산자들의 권리를 교회가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황재연·시명수, 2000b: 18-19; 2000c: 18-19; 2000d: 18-19; 2000e: 18-19; 시명수, 2001: 23;) 넷째, CCM의 공시대적 효용과 비기독교인들을 향한 역할, 교회 내 다음세대를 향한 가치, 그리고 문화사역에 있어서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한다.(이강혁, 2006: 100-107; 이영희, 2014: 42-45; 빛과소금, 2014: 42-46) CCM이 기독교인들에게 문화적 욕구를 풀어주는 창구이면서, 비기독교인을 향한 문화적 교류의 방편이고 거부감없는 복음전파의 도구라는 주장도 여기에 속한다. 더 나아가 일부 평자는, CCM 사역자들이 활동범위를 넓혀 대중음악계 내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생각을 펼친다. 다섯째, CCM이 교계의 인정을 받고 대중음악계로의 진출을 위해 음악적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도 존재한다.(류형선, 2000: 46-47; 하덕규, 2006b: 178-183;) 현재 CCM계의 난처한 상황이 상대적으로 불완전한 질적 수준에서 비롯된 것임을 주장하면서 극복의 의지를 피력하는 글도 꽤 많다. 이처럼 CCM 생산자 진영은 대부분 전문인 사역자라는 의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CCM의 전문성에 대한 내외부적 인정 속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있다.

세 번째로, 음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으며, 목회자와 CCM생산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비평장에 참여하고 있는 부류의 주장을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이들은 매우 다양한 직업군들로 구분되는데, 우선 음악 전공 교수 혹은 교육자가 많고,

기독교 방송국의 프로듀서, 교회 또는 선교단체의 음악사역에 일익을 담당하는 자, 대중음악 평론가 등이 있다. 다양한 직업군들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의견의 대립이 뚜렷하였는데, 목회자 그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CCM 수용 부분에서부터 다양한 견해가 제출되어 있다. 교회 안팎에서 CCM의 활용가치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활용방안에 집중하는 진영(김효정, 2000: 232-235; 김인호, 2001a: 102-107; 박성호, 2002: 118-124; 조기연, 2010: 44-49; 김섭리, 2014: 62-65; 문성모, 2014a: 210-215)에는 음악 프로듀서, 선교단체의 음악디렉터, 교수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대부분 CCM 사역과 관련해 간접적인 방식 이상으로는 경험한 부류다. 또한 목적은 다르지만, 대중음악 역시 일상적으로 취급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CCM을 전도나 친교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예배에 도입하는 것에는 반대 입장을 밝히는 진영(강인중, 2001: 242-246; 강임구, 2001: 54-59; 백효죽, 2001: 60-65; 임웅균, 2004: 24; 김정일, 2006, 38-47; 박정순, 2007: 82-87; 전희준, 2008: 228-237)이 있다. 이 진영은 대부분 음악 관련 교수이거나 교회음악을 교육하는 기독교기관의 교육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전통 교회음악과 CCM을 이분법적 시선에서 경계세우고, 예배음악의 내용과 형식 면에서 전통적인 교회음악에 한해 정당성을 부여한다. 이채로운 것은, 이들 중 꽤 많은 수가 클래식 음악을 전공했다는 점이다. 한편, 주장의 배경을 이루는 논리는 신학적 근거보다는 대중음악에 대한 편견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3의 견해로는, 예배 중에 CCM을 활용할 때는 더 신중해야 한다는 진영(김대권, 2006: 108-115; 전상직, 2008: 90-91; 홍정표, 2013: 10-17)이 있다. 그들은 CCM을 활용하되 가사의 신학적인 검토가 우선되어야 하고, 교회 내 성도들의 음악적 성향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한 뒤 개교회의 상황에 맞는 판단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지금까지 CCM의 수용과 활용에 관한 비평장 내 각 입장들의 보편적 입장을 살펴 보았다. 결과적으로, 고루하게 반복되어 온 주장들이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배타적으로 공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장에서는 좀 더 각론으로 들어가 합의되지 않는 쟁점들을 중심으로 존재하는 세부적인 시선들을 열거해 보고, 그러한 이견이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에서 비롯되는지를 파악해보도록 하겠다.

## 2. 반복되는 논쟁과 미해결의 입장들

CCM의 수용과 활용에 있어서 가장 큰 이견은 ‘컨템퍼러리’에 대한 실천적 입장에서 벌어진다고 할 수 있다. 바꿔 말해, 문화의 영역에서 ‘현대적인 것’, ‘공시대적인 것’은 아직 합의되지 않고 유보적인 어떤 것, 익숙하지 않은 대상이어서 낯설고 이질적인 형태의 어떤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때문에 진리의 보편성과 절대성, 영속성과 항구성 위에 존재하는 교회문화가 순발력있게 ‘컨템퍼러리’한 산물을 수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다.

사실상 CCM을 기존 교회음악으로부터 분리시키려는 견해에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는 건, 기독교적 가치를 담은 가사를 대중음악의 형식이 덮고 있다는 사실 자체다. 그 때문에 트렌디한 성격을 갖는 대중음악의 형식을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수용범위에 대한 논리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음악의 형식적 구성 문제는 가치중립적이거나,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CCM은 ‘컨템퍼러리’에서 기인하는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

그렇다면, CCM을 교회 내에서 배제시켜 할 대상으로 보거나, 대중음악의 영역 안에서만 소비되어야 할 세속적인 장르의 하나로 보는 견해(강인구, 2001: 54-59; 이성재, 2001: 47-53; 백호죽, 2001: 60-65; 오소운, 2001: 66-73; 강인중, 2001: 242-246; 박정순, 2007: 82-87; 강인중, 2009: 38-40; 박봉석, 2010: 200-202)는 ‘컨템퍼러리’의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 부류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주장은 1980년대에도 보수적인 시각으로 규정되었던 시각을 여전히 확대 재생산해서 보여준다. 이러한 견해를 내보인 평자들 중 가장 많은 수는 목회자나 신학을 전공한 교회 내 사역자들인 경우가 많다.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첫째, 음악은 결코 가치중립적이지 않으며, 가사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도 특정한 질적·윤리적·영적 의미를 갖는다. 특히 대중음악은 하나님의 의지에 반하는 그 시대의 불경한 정신을 담고 있는 하나의 가치규범이어서 기독교 정신과 상충되는 세속의 흐름을 따른다.(강인중, 2001: 246) 음악 자체에 감정과 사상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전제로, CCM의 효과가 청중의 육적 감정에 만족을 불러일으키고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여 흥분케 하는 것(박정순, 2007: 84-86)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더 극단적으로, CCM에 유입된 대중음악적 특질이 그 자체로 사탄의 속성과 닿아

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대중음악이 퇴폐적 행위를 미화하고 이성을 마비시켜 향락과 질서과괴에 빠지도록 한다면 CCM의 존재론적 가치를 휘발시키기도 한다.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불온한 장르로 가장 많이 지칭되는 대상은 록(ROCK)음악이다.(오소운, 2001: 71-73) 록음악의 뿌리인 로큰롤(Rock'N'Roll)은 근원적으로 '자유로운 성'을 노래하기에 이로부터 파생한 어떤 하위장르들도 '젊음, 자유, 저항'의 가치를 기록하지 못한 방식으로 담아낸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특정한 음악의 본질과 정체성은 그 음악 자체보다는 그 음악과 관계된 사람의 문화적 배경과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주장도(김철웅, 2006: 136) 그러한 부정적 시선을 연장하긴 마찬가지다. 록음악을 자유로운 성, 음주, 마약과 연결시키고, 음악 속 가사와 형식에 담긴 반항적 제스처를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과 연결시키는 설명도 존재한다. 세속적 인본주의와 록음악의 핵심 세계관은 뿔뿔히 떨어져 있을 수 없는 관계(강인중, 2009: 40)라는 것이다.

둘째, CCM의 영역이 대중음악에 속하는데, 대중음악의 질적 수준이 조야해서 클래식에 기반하거나 이를 뛰어넘는 전통 교회음악과 차이를 가진다는 주장도 있다. 이 역시 오래도록 반복 제출된 주장에 속하는데, 그에 따르면 음악은 크게 세 종류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세속음악으로 사람의 몸을 움직이게 하고, 둘째는 클래식 음악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마지막으로 찬양은 성도들의 몸과 마음과 영성을 풍부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의 근거에는, 대중음악이 기독교적 가치체계 내에 부적격이거나, 비정상적이라는 생각이 자리한다. 음악적 식견을 더해 이를 증명하는 주장도 술하게 많다. 예컨대, 클래식을 기반으로 한 기존의 교회음악의 종결부는 항상 I도의 기본화음으로 끝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일부 대중음악은 비정상적인 화음으로 종료되거나 특이한 긴장을 안기는 방식을 추종한다. 또한 4/4박자의 음악은 '강-약-중강-약'의 형태가 바람직한데, 그 반대인 "약-강-약-강"으로 환치된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 리듬의 비정상성이 불경건성을 보증한다는 것이다.(강임구, 2001: 56) 대중음악의 음악구성 형태인 당김음이나 불협화음 등이 인간이 안정을 잃게 하고 불안감을 줄 수 있다(박봉석, 2010: 201)는 설명도 지금까지의 논리를 반복한다. 이러한 관점을 뒷받침하는 음악장르로 다시 록과 랩 등이 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음악에 담긴 비트는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된다. 강한 리듬이 오래 지속되면 정신활동에 감각성을 잃게 되고 청자의 자제력과 인내심을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지금까지의 주장은, 대중음악을 교회 밖으로 추방되어야 할 세속적 가치와

불온한 기능의 접합점으로 규정한다. 그 때문에 CCM은 찬양을 담아내는 형식으로 매우 부적절한 것이 된다. 이러한 음악적 식견에 기초하면, 가사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음악적 형식 안에 가치판단의 근거가 선재한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CCM을 포함한 기독교 문화의 존재론적 가치를 방어적·수세적으로 인식한다고 할 수 있겠다. 교회가 세상과 능동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거나, 진출해 나가야 한다는 논리보다 세속 문화가 교회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서 썬이다. 또한 음악형식에 관한 근본적인 위계화가 가능하다고 믿으며, 신앙인의 사명과 예배의 가치를 ‘키킨다’는 의미를 매우 협소한 개념으로 받아들인다.

지금까지의 논의와는 반대되는 진영의 목소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음악의 형식은 가치중립적인 것이어서 오히려 가사가 중요하며, 따라서 가사가 찬양의 목적을 온전히 수행할 경우 CCM은 매우 효과적이라는 주장(황재연·시명수, 2000a: 20-21; 최혁, 2000: 92-96; 김인호, 2001a: 102-107; 박성호, 2002: 118-124; 성석환, 2005: 96-97; 하덕규, 2006a: 188-191; 이광복, 2006: 92-99; 김철웅, 2006: 134-143; 김섭리, 2013: 62-65; 문성모 2014a: 210-215; 2014b: 214-220)도 있다.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부류의 상당수는 CCM 사역자들이거나, CCM 산업 안팎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소위 ‘문화사역자’로 스스로를 특화시킨 경우가 많다.

이들의 견해를 좀 더 소상히 파악해 보면, 첫째, 가사가 본질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복음적이라고 한다면, 음악의 형식이나 연주 스타일은 비본질이거나 보조적이라고 보는 입장이 존재한다. 이들에게 본질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하는 것을 말하고, 비본질은 비교적 유연한 변화가능성으로 인식된다. 성경에서도 본질적인 것을 어떻게 행해야 할지에 대한 가르침은 기록되어있는 반면, 비본질에 해당하는 음악적 형식에 대한 가르침은 찾아 볼 수 없다는 논리도 함께 전개된다. ‘경배와 찬양’ 운동을 ‘영적 벤처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현장 사역자를 견해 온 최혁 목사의 견해는 이 진영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그는 히브리 민족음악의 원천을 이집트와 같은 당대 선진국에서 수입된 음악과 민중의 삶에서 발원한 민요의 착종이라고 파악한다. 이를 통해 그가 밝힌 사실은 성경 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을 할 때에도 당시의 문화적 요소를 활용했다는 것이다.(최혁, 2000: 93-94) 그 때문에 그는 오늘날의 찬양에 대한 문제 역시 성도들의 문화적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음악적 형식 안에 ‘성/속’의 가치가 결합되어 있다는 주장은 신빙성을 잃는다. 오히려, CCM을 통해

신앙고백이 가능한 사람들에게서 CCM을 활용한 찬양을 막는 일이 불필요한 규제가 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입장을 따르면, 음악으로서 찬양의 건강성을 결정하는 기준은 음악적 스타일이나 악기편성이 아니라 개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에 달린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김철웅, 2006: 138-141)

둘째, 오늘날 우리가 전통적 예배음악으로 생각하는 음악 역시 발생 당시부터 기독교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논리도 존재한다. 이들은 전통적인 예배음악에 자리잡은 음율이나 교회선법, 화음의 사용법, 음계, 예배용 악기들 모두 교회에서 발명된 것이 아니라 세속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주장한다. 예배음악이 기원에서부터 세속음악과 영향을 주고받았거나, 오히려 세속음악을 응용한 결과라는 것이다.(문성모 2014a: 210-215) 그 때문에 새로운 음악적 장르가 교회로 유입될 때 벌어지는 갈등을 비단 오늘날의 문제만으로 여기지 않는다. 예를 들어, 15세기 유럽에서는 단성부 음악에서 다성부 음악으로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이러한 흐름에 대해 예배 분위기를 혼란에 빠뜨린다는 이유로 비판을 가했다. 칼빈이 처음에는 다성부 음악을 금지했다는 사실도 널리 알려져 있다.

이 부류에 속한 평자들은 오늘날 정규 찬송가에 포함된 음악들 중 다수가 콘트라팍타<sup>3)</sup>를 통해 교회 음악으로 변형되었다는 점을 환기시킨다. 몇 가지 예로, 찬송가 15장 [오 거룩하신 주님]은 중세 당시의 유행가였던 [내 마음에 안정이 없네, 그 처녀 때문 일세]의 멜로디를 차용한 것이다. 또한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시],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역시도 유명한 민요를 콘트라팍타한 음악들이다.(박성호, 2002: 122-124) 이러한 논증을 경유하면, CCM을 찬양으로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형식결정론’, ‘장르 내 가치 내재론’ 등은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이처럼 전통으로 내려 앉아 굳이 의심할 필요가 없는 음악만을 받아들인다면, 새로운 것에 대한 열망을 수용해 내는 교회 음악이나 교회문화는 언제든 부정될 수 있음을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다.

한편, 지금부터는 논점을 전환해, CCM과 예배의 관계, 예배로서 CCM의 활용범위와 가능성에 대한 다른 입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공적 예배에 CCM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한 찬반은 결국 세 가지 층위로 구분된다. 첫째, CCM의 효과와 영향력은 인정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 예배시간에는 그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둘째, 예배에 쓰이는 음악이 따로 있을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음악을 받으시기

3) 콘트라팍타(Contrafacta)란 민요와 같은 세상음악을 교회음악으로 바꾸는 작업을 말한다.



때문에 CCM도 예배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CCM을 예배에 사용하되, 참여자들의 문화적 배경과 사용되는 음악의 스타일 및 가사의 적합성을 신중히 고려하여 한다는 ‘수용자의 입장에 따른 제한적 사용론’도 있다.

먼저 예배 중 CCM 사용에 회의적인 진영(강임구, 2001: 54-59; 백효죽, 2001: 60-65; 이성재, 2001: 47-53; 임웅균, 2004: 24; 박정순, 2007: 82-87; 전희준, 2008: 228-237)은 연령대가 높은 목회자 그룹이거나 클래식 전공자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대중음악은 교회가 타협할 수 없는 추방해야 할 문화적 산물인데, 이는 CCM이 저급하게 타락한 대중음악의 하위개념이기 때문이다. 평자에 따라 CCM을 속된 음악으로 취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그들 역시 CCM을 전도나 친교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 한해 그 효용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 때마저도 ‘찬양’이란 용어를 CCM에 붙이는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박정순, 2007: 87) 일부는 CCM이 주로 사용되는 ‘열린 예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 이는 전도와 예배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오류이며 믿지 않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도 주장한다. 그 때문에 ‘열린 예배’라는 말을 사용해선 안 되며 ‘전도 집회’ 또는 ‘구도자 집회’ 등의 용어를 사용할 것을 권한다.

결과적으로, 이 부류는 CCM의 기능을 일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예배가 아닌 특수 목적의 집회 등에 한해 엄격한 판단을 거쳐 사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들에게 예배란 거룩하고 엄숙한 가운데서 드러져야 하는 것인데 CCM은 ‘거룩’과 ‘엄숙’의 속성과 불화한다.(전희준, 2008: 229-232) 그에 대한 여러 다른 이유들이 존재하는데, 그 한 예로 CCM은 받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기 때문에 통속적이고 이기적이며 선동적이라고 성격화된다. 또한 찬송이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본질인데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토로하거나 스스로 흥겨워 즐기는 모습을 유도하는 CCM은 수직적 헌신을 담아내는 데 부적합하다고 본다.(이성재, 2001: 49-51) 그리고 가사를 음미하면서 영적 예배로 나아가기엔 가사 자체를 분별하기 어렵고, 리듬을 비롯한 음악형식들이 강하게 전달된다는 점 역시 지적된다.(강임구, 2001: 57) 일렉트릭 기타와 드럼의 큰 소리로 인해 가사 전달 자체가 방해 받는 것을 들며 사탄의 계략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존재한다.(임웅균, 2004: 24)

다음은 CCM을 예배에 사용하되,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집중하는 부류다.(최혁, 2000: 92-96; 임준상, 2000: 123-127; 조화순, 2001a:70-71; 하덕규, 2005: 206-208;

2006c: 198-202; 조기연, 2010: 44-49; 김섭리, 2013: 62-65) 역시 이에 속한 비평문들을 보면, CCM 현장 사역자들에 의해 작성된 글이 가장 구체적인 논지를 보여준다. 이들 중 일부는 CCM이 예배 중에 줄 수 있는 해방감과 자유감, 일탈감 역시 매우 중요한 가치로 이해한다. 찬양 중에 소리 지르고 뛰놀며 춤추는 것을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기도 한다. 이에 대한 성경적 근거로 다윗시대의 찬양방식을 예로 드는 경우도 존재한다. 다윗이 주장한 찬양의 방법을 보면, ‘큰 소리로’, ‘즐겁게’, ‘힘 있게’였으며 당시의 찬양은 갖가지 악기들이 모두 동원되는 축제적 형태를 지녔다(최혁, 2000: 95)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예배와 예배 중에 행해지는 찬송이 엄숙해야 한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맞선다. 또한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내용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시편의 구절들을 근거로 삼아 거기서의 ‘새 노래’를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내려주신 적합한 음악으로 해석한다. 그러한 논리를 연장하면, 세대감각에 맞는 찬양은 오히려 장려되어야 한다.(조기연, 2010: 44) 록과 힙합, 댄스 음악등의 양식을 접하며 자란 젊은층에게 기성세대의 취향에 입각한 곡 선택을 강요할 수 없다고도 말한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하덕규는 대중들로부터 검증된 CCM들을 찬송가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하덕규, 2006c: 198-202)

마지막으로 예배에서의 CCM 사용이 가능하지만, 다양한 변수에 대한 고려를 통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 존재한다.(이광복, 2006: 92-99; 김영기, 2006: 84-91; 김대권, 2006: 108-115; 전상직, 2008: 90-91; 이상일, 2010: 50-55; 홍정표, 2013: 10-17)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평자들을 보면, 목회자, CCM 관련 사역자, 전문적인 CCM 수용자들이 일정하게 섞여 있다. 그러한 ‘신중론’의 이유를 보면 첫째, CCM 중 비성경적인 곡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내용 경계론’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CCM을 신학적으로 검증하는 기관이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기도 하고, 음악적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 받은 은혜에 기초에 창작된 CCM곡들이 모두가 공유할 만한 진정한 ‘은혜’인가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비성경적인 가사에 기초하거나 메시지가 모호한 음악들이 간혹 예배에 사용되고 있다면서 그 사례를 지적하기도 한다.

이 문제를 푸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비평주체가 위치한 진영 논리가 유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목회자들이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찬송을 선곡할 때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김영기, 2006: 88-91)는 견해가 있고, 둘째, 아직 CCM 형식을 능숙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배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수용자 배려

론'도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예배 시 CCM 사용에 관한 '신중론'은 찬양에 사용된 악기나 음악적 형식이 예배에 참석한 다수의 수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집중한 논리로 귀결된다. 따라서 이들의 견해를 경청한다면, 사역자가 아끼는 CCM 곡이라도 일반 수용자로 하여금 예배에 전념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예배음악으로서의 효용을 재고해야 한다. 예배곡으로서 좋은 CCM이라면, 보편성과 포용력을 갖추어야 하는 셈이다. 그러했을 때, 공동의 고백과 표현의 일체성을 이룸으로써 진정한 예배음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김대권, 2006: 110-113)

세 번째 쟁점으로, CCM이 대중음악 진영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견들이 존재한다. 일부 진영에서는 CCM이 적극적으로 대중음악계로의 진출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류형선, 2000: 46-47; 정복희, 2000: 28; 김효정, 2000: 232-235; 김진아, 2001: 8-9; 조화순, 2001b: 60-61; 하덕규, 2006b: 178-183; 2007: 60-67;). 이는 CCM이 날로 세속화 되어가는 대중음악의 건전한 대안으로 기능해야 하며, 비기독교인들을 교회로 유인하는 통로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이웃한다. 이러한 주장의 성경적 근거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문화 명령'이다. 기독교인에게는 복음에 기초한 구별된 문화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의 문화를 바꾸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대중음악의 영역도 일종의 사역지로 전환된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견해로는, CCM의 음악적 수준을 일반 대중음악과 견줄 수 있을 만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한다.(하덕규, 2006b: 178-183; 2007: 60-67;)

한편, 이러한 주장에 우려를 표하는 평자들(강인중, 2001: 242-246; 백효죽, 2001: 60-65; 김정일, 2006: 38-41; 플러스인생, 2014: 122-125)은 다음과 목소리를 내고 있다. CCM이 일반 음악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업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사역과 사업 사이의 경계가 해체되고, 상업적 논리가 사역의 정신을 윤색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강인중, 2001: 246) 또한 일부 평자는 최근 기획된 CCM 걸그룹을 예로 들며, 대중문화의 연예 오락적 요소가 전면적으로 수용되는 경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한다. 지나치게 감각적 쾌락에 치중하는 대중문화를 닮아간다면, 교회 문화 안에 공존하는 기성세대의 문화나 전통적 음악엔 전혀 몰입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고 진단한다. 이처럼 상업주의와 오락적 문화의 영향을 경계하는 태도는 사역의 세속화를 부추길 수 있다(플러스인생, 2014: 124-125)는 점에서 CCM계를 포함해 기독교 문화 전반에 시사점을 던진다 하겠

다. 마지막으로, CCM의 사용이 교회의 성도를 늘리기 위해 찬양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행태(백효죽, 2001: 64-65)라는 극단적 주장도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 IV. CCM 활성화를 위한 시론적 제언

지금부터는 담보상태 혹은 퇴보상태에 놓인 CCM 사역의 가능성을 되찾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다. 이는 2000년대 이후 비평장을 채우고 있는 논리들을 생산적인 담론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시론적 제언이기도 한다.

첫째, 문화사역자 또는 CCM 현장 사역자를 중심으로, 현재 기독교계가 CCM 문화 진작에 기여하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 특히 CCM 사역자 혹은 찬양사역자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기관 증설, 교육 프로그램 구체화가 필요해 보인다.(김인호, 2001b: 112-117; 2001c: 106-115; 김진아, 2001: 8-9; 김영기, 2006: 84-91; 하덕규, 2007: 60-67; 이유정, 2007: 50-59, 박준형, 2007: 102-115) 과거부터 CCM 사역자가 신학적인 부분에서 교육을 받지 못했을 경우, 예배사역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던 사실이 지적되어 왔다.(김인호, 2001b, 116-117) 또한 음악적인 역량에 있어서도 수준을 높이지 못하면 일반 대중들은 물론, 대중문화에 익숙한 교회 내 기독교인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우려하는 진영도 있었다.(하덕규, 2007: 66-67) 이들의 주장을 바탕으로 제안을 하자면, CCM 사역자, 혹은 예배사역자(찬양사역자)를 위한 교육 중점은 두 갈래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는 신학적 배경을 다지면서 문화사역자로서 소양을 쌓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음악적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이다. 다시 음악적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하면, CCM 사역자를 위한 교육과 여타 CCM 아티스트를 위한 교육이 세부적으로 갈래화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독교 문화의 진로와 미래세대의 영적 각성을 걱정하는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부분적으로는, CCM사역자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과 신학교에서 목회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교회음악에 관한 교육의 비중을 늘려, 직접 사역이 아니더라도 올바른 동역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다수의 학교와 사역단체에서 이러한 찬양교육의 중요성이 각성(박준형, 2007: 102-115)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둘째, 교회문화와 대중문화 사이에서 CCM이 유연한 콘텐츠로 융통될 수 있음을 인

정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CCM을 교회음악의 계열로 수용할지, 혹은 대중음악의 하위 장르로 인정할지의 문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인식론적 구별의 차원, 곧 관념적 수용의 차원에 해당할 뿐, 그러한 분류 자체가 생산적 효과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복음이 오가는 일종의 플랫폼으로 CCM이 교회문화와 대중문화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를테면, CCM 사역자로 자리 잡은 아티스트가 대중음악계로 나아가 자기 메시지를 바탕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최근 여러 대중매체를 통해 집중 조명을 받은 소향이나 하림, 예레미의 강필성 등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한다. 반대로, 대중음악계에서 인정받은 기독교인 아티스트가 신앙인으로서 자기 삶을 통해, 또 정체성을 담은 음악을 통해 교회 안팎에 영향을 끼칠 필요도 있다. 힙합가수 선이나 국내 최고의 R&B 보컬리스트로 일컬어지는 박정현 등은 이미 그러한 역할을 해내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견해는 ‘성/속’, ‘교회/세상’의 이분법적 편견에 이미 배타적 폭력성이 내재해 있다는 판단을 전제한다. 결론적으로, 교회문화와 대중문화, 이 양자의 가교 역할을 하는 CCM 아티스트, 기독교 문화의 확장과 복음적 가치로의 수렴을 동시에 해낼 수 있는 롤모델이 절실히 요청<sup>4)</sup>된다고 할 수 있겠다.

셋째, CCM이 다루는 주제적 범위를 확장하고, 다양성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 사실, CCM의 주제가 지나치게 획일적이라는 문제의식은 수많은 평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이다.(지유철, 2000: 130-142; 김인호, 2001d: 100-107; 남원준, 2001: 36-39; 성석환, 2005: 96-97) CCM이 예배에의 활용에만 집중한다면, 내용 면에서 ‘컨템퍼러리’적 속성, 곧 ‘동시대성’을 잃어버릴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해 CCM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사회적 주제’의 필요성을 역설한 주장에 관해서만 소개해보도록 하겠다. 김인호는 CCM이 목회세습이나 목회자의 윤리성 문제를 다뤄야 할 필요성까지 언급한다.(김인호, 2001d: 106-107) 성석환은 민족적, 인류사적, 사회문화적 문제들이 가사로 육화 된 CCM을 언급하고, 전남식은 세월호 사건을 예로 들며,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불의한 권력의 실체를 폭로함으로써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음악을 요청

4) 기독교팍캐스트 <내가 복음이다> 문화특집에서 밝힌 은희승(기독교문화기획자)의 말에 따르면 CCM 아티스트가 되고자 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음악에 대한 모델을 기존 CCM 사역자가 아닌 나얼, 소향, 옥상달빛, 제이레빗, 커피소년 등 실력은 동일하게 갖추면서도 기독교 가치관을 노래하는 아티스트로 삼고 있다고 언급한다.

하기도 한다.<sup>5)</sup> 또한 홍순관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신대 할머니들을 위한 사역을 진행하였고(지유철, 2000: 130-142) CCM이 그런 사안에 접근해갈 수 있음을 증명하기도 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다시 언급하면, CCM이 대사회적 주제의식을 수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주제적 범위를 확장하고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의 아주 작은 일면을 드러낸다 할 것이다.

셋째, CCM 소비문화의 개선을 위해 저작권을 비롯한 사역자의 권리를 지켜갈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황재연과 시명수는 2000년 주간지인 [주간기독교]에 교회음악의 저작권에 관련한 글을 연재한 바 있다.(황재연·시명수, 2000a: 20-21; 2000b: 18-19; 2000c: 18-19; 2000d: 18-19; 2000e: 18-19) 그들은 ‘크리스천 음악인’에 대한 인정과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예배를 섬기는 찬양사역자만을 사역자로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로 인해 크리스천 음악인들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더 구체적으로 사역과 사업 사이에서 계속 갈등을 겪게 된다고 기술한 바 있다. 저자들은 역대상의 내용 중 교회 음악가들을 성직에 임명한 사례를 근거로 교회가 크리스천 음악인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것을 주장하였고, 십계명과 마가복음의 기술을 토대로 사유재산권과 지적 소유권이 성경적인 것임을 밝히며 그것의 제도적인 방안으로 저작권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이 같은 성경적 근거를 무시한 채 크리스천 음악인들에게 헌신만을 요구하는 것은 올바른 문화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창작자에 대한 보호와 섬김이 동반될 때(시명수, 2001: 23) CCM의 가치가 보장되고, CCM의 선한 영향력이 확보되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첫 걸음은, 개교회가 음원과 악보를 사용할 때 무분별한 복제를 지양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장기적인 과제로서 소위 ‘한국인적인 CCM’에 대한 고민이 결실을 맺어야 할 것이다. 김인호는 한국 경배와 찬양 운동의 문제점 중 하나가 한국의 전통음악에 대한 배제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로부터 교회 내 청년들이 신앙선조들이 남긴 고귀한 유산을 부정한 것으로 인식하거나, 기독교를 서양종교로만 이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김인호는 예수전도단의 10집 [거룩한 성전]을 예로 들며, 한국적 가락과 악기로 재해석한 경배와 찬양이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김인호, 2001b: 117) 최근 문성모도 여러 민족의 구전민요들이 콘트라팍타의 과정을 거쳐 교회음악이 되었음을 강조하며 한국식 콘트라팍타 곡에 대한 필요성을 주창

5)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8759> (검색일 2015.4.7.)

한 바 있다. 그 예로 한국의 전통 민요인 ‘아리랑’이 찬송가로 변모해 미국 장로교에서 쓰인 사실을 거론하기도 한다.(문성모, 2014b: 214-220) 첨언하면, ‘한국적인 CCM’을 언급하는 것은, 교회음악을 협소한 형식, 고정된 내용 안에 귀착시켜 온 일각의 주장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V. 결론

CCM은 한국 교회사에서 일정한 시기에 유효했던 문화운동으로 그치진 않을 것이다. CCM은 이미 기독교음악을 대변하는 대명사로 자리잡았으며 예배와 복음전파에 있어서 실효성을 지닌 수단으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본 연구의 출발은, CCM 태동기에 제기되었던 쟁점들이 여전히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비롯되었다. 연구 과정도, 지난 30여년 동안 확인된 CCM의 잠재력이 한국 교회 문화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교회 밖과의 긍정적인 소통방식을 찾아낼 수 있으리란 믿음에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확인한 건, 한국 기독교가 새로운 문화적 산물을 바라보는 스펙트럼에 있어서 매우 이질적인 입장들을 끌어안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배경에서 ‘성/속’에 관한 이분법적 편견의 완고함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음악에 관한 ‘형식 결정론’, ‘장르위계론’, ‘장르 내 가치 내재론’에 대한 흥미로운 주장들을 만날 수 있었다. CCM의 활용에 관해서는 ‘수용자의 입장에 따른 제한적 사용론’(수용자 배려론)과 ‘내용경계론’(가사 신중론) 등을 분별하면서 그 배면에 놓인 신앙관의 특징들을 감지할 수 있었다.

연구를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CCM이 처한 현상황을 타개할 아이디어를 찾는 작업의 지난함을 절감한다. 이 문제는 다시 여러 비평주체들이 참여하는 비평장의 공론 기능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글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최소한의 방향성을 제안한 것으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지면의 제약으로 인해, 또 CCM 사역 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CCM의 수용과 활용에 관한 유의미한 논점들을 다 포괄하지 못한 점이 못내 아쉽다. 이에 관해선 후속 연구를 기약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고문헌

- 장인중 (2001). “대중음악, 형식보다 메시지가 우선입니다.” 『목회와 신학』 . 8. 242-246.
- \_\_\_\_\_ (2009). “당신이 듣고 있는 노래, 안전하십니까?” 『플러스인생』 . 7. 38-40.
- 강임구 (2001). “교회음악 지도자를 발굴하라.” 『월간목회』 . 6. 54-59.
- 김대권 (2006). “교회에 의한, 교회를 위한, 교회를 향한 섬김으로.” 『월간목회』 . 2. 108-115.
- 김섭리 (2013). “적과의 동침, 찬양대와 찬양팀.” 『위십리더』 . 11. 62-65.
- 김영기 (2006). “예배 속의 찬양을 진단한다.” 『월간목회』 . 2. 84-91.
- 김인호 (2001a). “뉴에이지 음악을 들어도 되는가 - CCM과 뉴에이지 음악.” 『복음과 상황』 . 5. 103-107
- \_\_\_\_\_ (2001b). “경배와 찬양운동에 대하여.” 『복음과 상황』 . 7. 112-117
- \_\_\_\_\_ (2001c). “우리도 열린예배나 한번 드려볼까?” 『복음과 상황』 . 7. 106-115
- \_\_\_\_\_ (2001d). “주류질서의 전복자들 - 10대위주의 가요와 팝시장 그리고 CCM.” 『복음과 상황』 . 6. 100-107.
- 김정일 (2006). “예배와 교회음악 날마다 새노래를 부르자.” 『월간고신』 . 1. 38-41.
- 김지환 (2012). “한국 CCM 역사와 음악적 변화연구.” 석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 김진아 (2001). “이제는 교회음악에도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주간기독교』 . 3월 18일. 8-9.
- 김철웅 (2006). “CCM에 관한 고정관념을 깨라.” 『월간목회』 . 7. 134-143.
- 김효정 (2000). “복음이 다스리는 대중음악을 꿈꾼다.” 『목회와 신학』 . 4. 232-235.
- 남원준 (2001). “노랫말과 함께하는 시간여행.” 『CCM LOOK』 . 3-4. 36-39.
- 류형선 (2000). “CCM, 대중음악 등지틀기.” 『CCM LOOK』 . 1-2. 46-47.
- 문성모 (2014a). “예배음악의 순혈주의는 없다.” 『기독교사상』 . 11. 210-215.
- \_\_\_\_\_ (2014b). “콘트라팍타 그 끈질긴 생명력.” 『기독교사상』 . 12. 214-220.
- 민호기 (2006). “전 세대에 부합하는 자발적 예배로의 회복.” 『월간목회』 . 2. 73-83.
- 박봉석 (2010). “음악과 윤리성.” 『월간목회』 . 5. 200-202.
- 박성호 (2002). “찬양으로 쓰일 수 없는 음악도 있는가.” 『복음과 상황』 . 11. 118-124.



- 박양식 (2001). “내 안에서 나오는 노랫말.” 『CCM LOOK』 . 1-2, 32-33.
- 박정순 (2007). “성령의 감동과 진리를 겸비한 예배음악을 회복하자.” 『월간목회』 . 9. 82-87.
- 박준형 (2007). “찬양 사역자 양성 기관과 사역 단체.” 『목회와 신학』 . 2. 102-115.
- 박철순 (2000). “찬양인도자를 예배인도자로 부르자.” 『소금과 빛』 . 8. 102-105.
- 백효죽 (2001). “복음성가와 CCM 어떻게 다른가.” 『월간목회』 . 6. 60-65.
- 빛과소금 (2014). “뿔뿔으로 주님 전할래요!” 『빛과소금』 . 5. 42-46.
- 성석환 (2005). “CCM의 도전,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 『월간고신』 . 10. 96-97.
- 시명수 (2001). “CCM산업의 계속되는 번창” 『주간기독교』 . 8월26일. 23.
- 오소운 (2001). “사탄도 음악을 사용한다.” 『월간목회』 . 6. 66-73.
- 윤나리 (2010). “한국 교회음악의 새로운 분류체계 제시.” 『한국음악문화연구』 . 1. 135-168.
- 이강혁 (2006). “성경적 진리 위에 서가는 CCM.” 『월간목회』 . 2. 100-107.
- 이광국 (2000). “CCM의 미래를 위하여.” 『주간기독교』 . 4월9일. 20-21.
- 이광복 (2006). “참된 신앙의 고백을 담은 찬양으로.” 『월간목회』 . 2. 92-99.
- 이상일 (2010). “예배음악 이대로 좋은가.” 『월간목회』 . 11. 50-55.
- 이성재 (2001). “한국교회 예배음악 이대로 좋은가.” 『월간목회』 . 6. 47-53.
- 이영희 (2014). “별의 별 예배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플러스인생』 . 4. 42-45.
- 이유정 (2007). “한국 교회의 찬양과 경배 사역.” 『목회와 신학』 . 2. 50-59.
- \_\_\_\_\_ (2013). “위기의 찬양팀, 그 해법은?” 『교회성장』 . 10. 49-58.
- 이한균 (2008). “대중음악 장르의 관점에서 본 CCM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임웅균 (2004). “루시퍼의 계략.” 『플러스인생』 . 1. 24.
- 임준상 (2000). “CCM 아티스트인 담임목사의 주일예배 엿보기.” 『소금과 빛』 . 8. 123-127.
- 전상직 (2007). “교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중적 악기에 대한 단상.” 『월간고신』 . 3. 90-91.
- 전희준 (2008). “세속화 되고 있는 예배음악 누가 회복할 것인가?” 『기독교사상』 . 9. 228-237.
- 정복희 (2000). “대중음악의 커뮤니케이션과 CCM.” 『CCM LOOK』 . 3-4. 28.
- 조기연 (2010). “열린예배와 음악.” 『월간목회』 . 11. 44-49.
- 조화순 (2001a). “CCM 세미나.” 『CCM LOOK』 . 3-4. 70-71.

- \_\_\_\_\_ (2001b). “우리가 나누었던 괜찮은...” 『CCM LOOK』. 1-2. 60-61.
- 지유철 (2000). “아, 이 참을 수 없는 우리 노래의 확실성.” 『복음과 상황』. 9. 130-141.
- 최혁 (2000). “예배와 음악, 성경으로 풀어보기.” 『소금과 빛』. 8. 92-96.
- 플러스인생 (2013). “CCM의 행로에 대한 단상.” 『플러스인생』. 11. 122-125.
- 하덕규 (2005). “교회와 사회 그리고 열방에 아름다운 찬양을!” 『목회와 신학』. 12. 206-208.
- \_\_\_\_\_ (2006a). “흑인영가에서 CCM까지.” 『목회와 신학』. 4. 188-191.
- \_\_\_\_\_ (2006b). “진실한 삶을 무기로 세상을 변화시키다.” 『목회와 신학』. 3. 178-183.
- \_\_\_\_\_ (2006c). “21세기 찬송가 발간에 관한 몇가지 제안.” 『목회와 신학』. 11. 198-202.
- \_\_\_\_\_ (2007). “기독교 음악, 계토의 언덕을 떠나라.” 『목회와 신학』. 2. 60-67.
- \_\_\_\_\_ (2013). “교회음악과 교회의 부흥.” 『교회성장』. 10. 11-17.
- 황재연·시명수 (2000a). “음악인가, 찬양인가?” 『주간기독교』. 6월25일. 20-21.
- \_\_\_\_\_ (2000b). “사역인가 비즈니스인가?” 『주간기독교』. 8월6일. 18-19.
- \_\_\_\_\_ (2000c). “크리스천은 음악가라는 전문 직업인으로 믿음을 증거할 수 없는가?” 『주간기독교』. 9월10일. 18-19.
- \_\_\_\_\_ (2000d). “저작권법은 왜 탄생되었나?” 『주간기독교』. 10월22일. 18-19.
- \_\_\_\_\_ (2000e). “저작권법은 세상법인가, 하나님 법인가?” 『주간기독교』. 12월24일. 18-19.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8759> (검색일 2015.4.7.)

<http://www.podbang.com/ch/7023> (검색일 2015.3.25.)

## ABSTRACT

# A Study on the Issue of the Korean CCM in the Field of Criticism After the Year 2000 For the Productive Discourse of the Embrace and Application of CCM

Tae-Ryong Kim (Konkuk University)

Soong-Beum Ahn (Konkuk University)

This study was intended to identify the long repeated issues through the field of criticism related to CCM after the year 2000. In this process, it attempted to shed comprehensive light on the realities confronting the Korean CCM and to examine the different views according to the nature of subject of criticism. Actually, it attempted to analyze the presented composition of criticism according to the type of subject of criticism. As a result, it could find out a difference in the view of faith existing within the church and a difference in the position of looking at the culture and the lie. And it could find out Korean christianity embraced very heterogeneous positions in the spectrum of looking at the new cultural product.

In conclusion, this study intended to propose the insufficient yet productive discourse while embracing the different views on CCM. This is nothing more than a sketchy suggestion but its contents include the intention for opening the advance discussion on CCM. Many tasks for development of CCM not discussed in this study are left to the public discussion of the field of criticism attended by several critics.

Key words: CCM, Field of criticism, Church music, Subject of criticism,  
Worship and praise, Cultural movement

